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Gangnam Region of Seoul as A New Cluster in A New Renaissance?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sjchoo@khu.ac.kr)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이 영화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한국 영화산업의 독특한 성장과정과 최근의 부흥 특성, 관련업체와의 협력, 인력 및 자원 조달 등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체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한 입지변화분석과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영화제작의 특성상 표준화된 설문지를 다량 배포·회수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전국적인 영화산업의 입지 변화를 보면, 서울에의 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1995~2004년 기간에 그 크기는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두 배에 조금 못 미치게 증가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 8711)과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서비스업(8712)에 있어, 서울은 업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 그 비중은 각각 81.3%와 74.7%에 달하였다. 동 기간 서울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에 있어 소위 '충무로'라 할 수 있는 중구 명동과 필동, 그리고 인근의 종로구는 감소 또는 정체, '강남지역'의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서초동, 양재동은 두 배 가까운 증가의 패턴이 발견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제작업체의 입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한 요인에 대하여 인터뷰조사에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 ① 창업 및 입지선정 과정의 측면에서, 충무로가 영화산업의 중심이었을 때 자연스런 과정으로 충무로 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창업하는 업체들은 새로운 업체가 모여 있는 강남지역을 선호한다. 여기에는 과거나 현재 모두 장소의 상징성과 지명도가 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역량 있는 독립·자생 업체들은 충무로나 명륜동 같은 기존의 장소를 고수한다.
- ② 생산체계 및 관련 업체와의 연계에 있어, 프로젝트 팀으로 움직이는 영화제작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맥이나 업체의 평판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에 충무로와 강남의 차이가 의미 있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 ③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영화업계의 분위기 때문에 매

* 이 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3-003-B00399)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근접성이 요구되지만, 제작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④ 영화업체간 인력자원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각 기능의 인력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운영되며, 업체간 근접성이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의 이동에 있어 강남지역이 갖는 특수한 이점은 없다.
- ⑤ 각종 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제도적 요인은 영화산업의 입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⑥ 영화제작의 환경으로서 충무로와 강남지역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인식되지는 않는다. 강남지역이 갖는 강점은 창업투자사의 집중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이점, 편의시설과 정보가 집중된 곳으로서 트렌드 파악의 유리함 등이다.

이러한 발견을 종합해볼 때, 서울 강남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영화산업 집적지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화된 기능과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탄탄한 생산체계보다는 영화관련 인력 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느슨하게 형성된 집적지(loosely-articulated cluster)'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국지화경제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작사 사이, 또는 제작사와 관련 업체 사이에 형성되는 비거래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y)이 중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영화제작업체가 집중하는 데에는 생산의 환경으로서 이곳이 제공해주는 혜택, 즉 도시화 경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의 획득과 트렌드 파악이 유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영화제작의 분위기가 강남지역 고유의 정서와 일치함으로써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배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화산업이 이렇게 특정지역을 지향하는 특성은 영화제작이 갖는 원천적 불확실성, 프로젝트 기반의 팀 운영, 영화제작세대의 차별화의식, 대기업의 참여와 자본투자의 거대화 등의 특수성과 연결하여 설명된다.